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장 영 은·박 정 윤(중앙대학교 교수)·이 승 미(우석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경쟁 및 성과 위주의 교육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욕설, 폭력 및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우울과 자기조절 능력의 부족 등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비단 극단적인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생애 초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초등교육에서 더 강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과 함께 인성교육이 바른생활 교과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성과위주의 학교운영에 가로막혀 효과적 인성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에 유아교육, 보육, 그리고 초등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유아 및 초등교육 내에서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 효과성과 한계점,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중요요소를 파악한 결과 교사들은 교과교육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개념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의 실제 자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학교별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인지하였다. 한편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배려심, 절제감, 책임감, 수용감, 관용, 존중감 등이었다. 둘째, 교사들이 지각하는 인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가정교육의 부족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 신체와 인지능력의 학습적 능력은 빨라지나 인성과 정서 영역은 퇴행하는 성장의 불균형적 성장,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초등학교와의 인성교육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불일치성으로 인한 혼란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의 한계와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성교육에 대한 소홀함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셋째, 교사들이 언급한 인성교육의 개선방향으로는 1)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방법과 자료, guideline 마련해야 하고, 2) 부모,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화를 위한 시스템(정기적인 부모교육 등)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 현재의 학교교과과정과 지역사회자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다른 교과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4) 전담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보다 질 높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상담교사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